

# 경기아트센터, '2021 찾아가는 Let's DMZ' 현장 영상 공개

머니투데이 | 경기=임홍조 기자

2021.11.01 10:50

<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1110110483643205&type=1>

기사주소 복사



2021 Let's DMZ 평화예술제에 참가한 가수 알리가 무대를 펼치고 있다. /사진=경기아트센터

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'2021 찾아가는 Let's DMZ' 공연·행사 영상이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.

이 행사는 '2021 Let's DMZ 평화예술제'의 일환으로, 지난 한 달간 군포, 고양, 김포 등 도내 주요 시·군 및 접경지역과 연계해 추진했다.

이는 'Let's DMZ가 찾아가는 그 곳, 그 순간이 바로 평화'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특강과 음악이 어우러진 토크 콘서트로 구성됐다.

행사에는 미얀마 출신의 작가 찬찬을 포함해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들의 특강은 물론 싱어송라이터 강산에, 알리, 장필순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졌다. 경기아트센터가 그간 문화나눔사

업을 통해 발굴한 청년 아티스트들과 경기팝스앙상블도 참여했다.

북녘 땅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'김포애기봉생태공원'에서 펼쳐지는 무대도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. 최근 새단장을 마치고 5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포 애기봉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안에 자리잡은 한반도 유일의 남·북 공동이용수역(Free-zone)으로,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다.

경기아트센터는 지난달 치러진 행사·공연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, 이달 매주 월요일마다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다.

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"찾아가는 Let's DMZ는 경기도 각 지역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"라며 "많은 이가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필요성과 DMZ 가치에 공감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

2021 Let's DMZ 평화예술제 행사 포스터. /사진=경기아트센터

[저작권자 © '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' 머니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